

랩 위드의 AI 기반 솔루션 >

AI가 쓴 R&D 제안서,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 랩위드 v7 실제 출력 예시



기술사업화 랩 위드
2026.07.31. 12:30 조회 19

댓글 0 URL 복사

AI로 사업계획서를 써본 적 있으신가요?

정부 R&D 과제를 준비하면서 AI에게 항목을 써달라고 부탁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빠르고 유창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정 평가위원회를 거처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실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목표치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습니다. 측정방법이 없습니다. 시장 규모 수치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범용 AI는 "그럴듯한 문장"을 잘 씁니다. 하지만 정부 R&D 제안서의 프로토콜을 모릅니다.

랩 위드가 전용 AI를 직접 만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 전용 AI

AI가 쓰면 다를까?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범용 AI

과제 주제: 제조 현장 소음 절단공정 무인 자동화

→ "기술적 목표를 써주세요"

자동화율을 높이고 소음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 목표치 없음
- 단위 없음
- 측정방법 없음 → 심사 점수 없음

VS

랩 위드 rnd-midm v7

과제 주제: 제조 현장 소음 절단공정 무인 자동화

→ "기술적 목표를 써주세요"

항목	현수준	목표치	측정방법	설정근거
소음 저감	110dB	85dB ↓	소음측정기	청력손실 위험
자동화율	3인	1인 ↓	투입인력수	인건비 비효율
생산성	50개/일	200개 ↑	시간당생산량	수동공정 한계

- 목표치·단위·측정방법·설정근거 완비
- 근거 없는 수치는 생성하지 않음

4,984

v7 학습량

5대

R&D 핵심 항목

10년

실문서 기반 학습

기술사업화 랩 위드(주)

www.labwith.kr

하나의 과제로 보는 v7 출력 예시

과제 : **제조 현장 고소음 절단공정의 무인 자동화 및 저소음화 장비 개발**

v7이 이 과제에 대해 각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실제 학습 형태로 보여드립니다.

예시 1 — 요소기술 정의

범용 AI라면 이렇게 씁니다.

"소음 저감 기술, 자동화 제어 기술,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v7이 쓰는 방식입니다.

■ 요소기술 정의

1. 저소음 절단 모듈 — 방진·차음 구조 및 절단부 진동 저감 설계
2. 무인 이송·정렬 자동화 — 서보 구동 소재 이송 및 비전 기반 정렬
3. 안전 인터록·모니터링 — 소음·진동·이상 감지 센서 및 자동 정지 로직

기술 명칭과 구현 방식을 분리해 번호로 구분합니다. 막연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는지가 보입니다.

예시 2 — 연구방법론 (단계별)

범용 AI라면 이렇게 씁니다.

"체계적인 연구개발 방법론을 적용하여 목표를 달성한다."

v7이 쓰는 방식입니다.

■ 연구개발방법 (단계별)

- [설계] 절단부 소음원 분석 → 차음 구조·자동화 기구 설계
- [구현] 저소음 모듈·이송 자동화·안전 로직 제작 및 통합
- [검증] 소음(dB)·자동화율·불량률 시험,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
- [현장적용] 실제 제조 라인 시범 적용 및 개선

설계 → 구현 → 검증 → 현장적용의 단계별 흐름이 명확합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기술합니다.

예시 3 — 기술적 목표 (핵심 항목)

범용 AI라면 이렇게 씁니다.

"소음을 줄이고 자동화율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v7이 쓰는 방식입니다.

목표항목	현 수준	목표치	국내외 최고 수준 대비	측정방법	설정 근거
소음 저감	110dB	85dB 이하	안전기준(85dB) 부합	소음측정기(KS기준)	청력손실·안전사고 위험
자동화율	3인 수동	1인 무인화	동종 자동화 장비 수준	투입 인력·자동화율	인건비·작업동선 비효율
생산성	50개/일	200개/일	4배 향상	시간당 생산량	수동 공정 저생산성 해소

목표치·단위·국내외 최고 수준 대비·측정방법·설정근거를 표로 제시합니다.

이것이 실제 평가위원이 확인하는 형식입니다.(예시는 한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예시 4 — 사업화방안

범용 AI라면 이렇게 씁니다.

"국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

v7이 쓰는 방식입니다.

■ 목표 시장 TAM: 국내 제조 절단장비 전체 시장

SAM: 저소음·자동화 세그먼트

SOM: 초기 3년 목표 점유 라인 (근거 수치 기반)

- 수익모델 장비 판매 + 유지보수·소모품 + 원격 모니터링 구독
- 경쟁우위 소음 저감 + 무인화 + 안전 인터록의 통합 설계 (단품 경쟁사 대비 차별화)
- 사업화 추진단계 시제품 → 현장 실증 → 인증 → 양산·판매
- 예상매출 도입 라인 수 × 해당 단가 기반 연차 추정 (근거 없는 수치는 생성하지 않음)

시장을 TAM/SAM/SOM으로 구분하고, 수익모델과 경쟁우위를 분리합니다. 근거 없는 수치는 만들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v7의 모든 학습쌍은 이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시] 해당 항목 규격대로 작성하시오

[근거] 실제 문서에서 발췌한 텍스트 → **[출력]** 근거 기반, 항목 규격에 맞는 구조화 답변

5대 핵심 항목, 총 4,984건의 학습쌍입니다.

모두 랩위드가 10년간 직접 수행하고 완료한 실문서에서 추출했습니다.

범용 AI는 인터넷의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합니다.

강력하지만, 기관 내부에서 유통되는 정부 R&D 제안서 형식은 인터넷에 거의 없습니다.

랩 위드 전용 AI는 다릅니다. 학습 데이터 자체가 기술사업화 실문서입니다.

컨설팅에 어떻게 활용하나

컨설턴트가 과제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각 항목의 초안을 잡습니다.

컨설턴트는 처음부터 작성하는 대신 근거기반 초안을 검토하고 완성합니다.

고객의 R&D 자료, 특허 정보, 기술 문서는 사내 서버에서만 처리됩니다.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학습 데이터가 좋으면 초안의 질이 달라집니다. 초안의 질이 달라지면 컨설팅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술사업화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 www.labwith.kr

댓글을 남겨보세요



등록